



국제그린카 전시회 2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2011 국제그린카 전시회'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재균 국회의원의 등이 현대·기아차 등 5개국 129개사가 출품한 전기차·클린디젤·수소연료전기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왜 많이 늘었나 했더니...

호남고속철도 예산 과대포장

7500억원 시·도 지원액에 중복 포함

광주시의 내년도 국비 지원액이 역대 최대규모인 2조원을 돌파하고 이르고 전남도는 7조원을 넘어섰다. 발표된 수치로만 보면 팽막한 지방재정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올법하다. 과연 그럴까. 광주·전남의 내년 살림살이는 나아질까.

내년 광주·전남이 확보했다는 국비 지원액 중에는 광주시의 경우 7500억원, 전남도는 무려 1조8000억원(국비 7500억원+철도시설공단 1조5000억원)의 호남고속철 건설 사업 예산이 포함돼있다. 두 곳을 합치면 2조55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내년에 추진되는 호남고속철 건설사업은 철도시설공단이 1조5000억, 국가가 7500억을 투입해 국가가 추진한다. 광주시나 전남도에 내려오는 예산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금액을 전체 지원액에 포함시켰다. 광주시는 내년도 국비지

원액이 올해보다 5488억원 증가한 2조156억원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금액에는 광주~전남 구간의 호남고속철 예산 7500억원이 포함돼있다. 전남도가 발표한 내년도 국비지원액 7조330억원에도 이 7500억원이 포함돼있다. 이처럼 7500억원이 양 시·도의 국비지원액에 중복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시·도의 실제 예산 증가규모는 당초 발표에 다소 못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하고는 동떨어진 호남고속철 예산이 포함되면서 내년도 광주·전남 지역 국비지원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착시(錯視)현상이 생긴 셈이다.

눈에 띄는 점은 전남도는 전체 국비지원액에 2개 이상 시·도에 투자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 3건(▲호남고속철도 1조8000억 ▲전주~광양 고속

도로 1000억 ▲익산~순천간 전라선 복선화 442억)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한 실제 국비 지원액도 5조 888억이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국가 사업을 별도로 분리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이때쯤 올해 국비 지원액(6조9804억원)을 발표하면서 '슬쩍' 호남고속철 예산을 포함시켰던 것과는 사뭇 달랐던 것인데, 이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시정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과거 관행에 얽매어 국비 확보 규모를 무조건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확보에 힘써 좋은 성과를 낸 것을 알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국가사업 예산을 저마다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되레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도.

/김지영기자 dok2000@kwangju.co.kr

호남, 이렇게 가난할 수가...

법인 소득 전국평균 33% 불과
근로자 43% 면세점 이하 소득

호남지역의 법인·개인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한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와 근로빈곤층(Working Poor)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등 호남지역의 소득구조 및 모두가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8일 배포한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법인 평균소득은 4억 6000만원이었으나 광주지역 법인의 평균소득은 1억6000만원으로 13위, 전남은 1억5000만원으로 14위, 전북·세주는 1억300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 같은 호남지역 법인의 평균소득(1억5000만원)은 전국 평균의 3분의 1, 나아가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서울(7억2000만원)의 5분

의 1수준에 불과했다. 호남지역 개인사업자의 소득도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광주지역 개인사업자의 평균소득은 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2500만원의 80%, 서울 3500만원의 57% 수준에 그쳤다. 또 지난해 호남지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2362만원으로 전국 평균(2611만원)의 90%수준에 그쳤고, 서울에 비해서는 464만원이 나 적었다.

실제로 지난해 호남지역 간이과세자 비율은 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에게는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급계산자가 없어도 정부가 정한 부가가치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며 일반과세자가 발생하는 세급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

■ 2010년 개인사업자 평균소득 금액 (단위: 천원, 억원)

| 연도 | 2010년 신고분 | | |
|----|-----------|---------|----------|
| | 인원 | 총합소득 | 1인당 평균소득 |
| 전국 | 3,571 | 902,257 | 0.25 |
| 서울 | 945 | 332,813 | 0.35 |
| 인천 | 213 | 42,069 | 0.20 |
| 경기 | 879 | 200,116 | 0.23 |
| 강원 | 90 | 16,405 | 0.18 |
| 대전 | 100 | 21,433 | 0.21 |
| 충남 | 88 | 17,101 | 0.19 |
| 충북 | 116 | 22,711 | 0.20 |
| 광주 | 100 | 20,284 | 0.20 |
| 전북 | 98 | 18,456 | 0.19 |
| 전남 | 89 | 14,960 | 0.17 |
| 대구 | 167 | 40,607 | 0.24 |
| 경북 | 138 | 27,375 | 0.20 |
| 부산 | 261 | 63,930 | 0.24 |
| 울산 | 71 | 16,666 | 0.23 |
| 경남 | 181 | 40,181 | 0.22 |
| 제주 | 35 | 7,150 | 0.20 |

나아가 지난해 호남지역 근로소득자 100명 중 43명(전국 최고)은 각종 공제 후 연간 소득이 면세점인 1770만원(4인 가족 기준) 미만인어서 근로소득세가 면제된 반면 소득세 최고

■ 2010년 시도별 법인 평균 소득 (단위: 개, 억원)

| 구분 | 2010년 신고 | | | 전년대비 법인당 소득금액 증감(%) |
|----|----------|------------|----------|---------------------|
| | 법인수 |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 1인당 소득금액 | |
| 전국 | 440,023 | 2,039,345 | 4.6 | -4.2 |
| 서울 | 150,378 | 1,084,281 | 7.2 | 0 |
| 인천 | 17,842 | 64,864 | 3.6 | -5.3 |
| 경기 | 91,298 | 373,435 | 4.1 | 10.8 |
| 강원 | 9,618 | 16,729 | 1.7 | 0 |
| 대전 | 10,055 | 50,632 | 5 | 2.0 |
| 충북 | 12,326 | 25,003 | 2 | -4.8 |
| 충남 | 15,849 | 53,442 | 3.4 | 36.0 |
| 광주 | 11,365 | 17,674 | 1.6 | -5.9 |
| 전북 | 13,609 | 17,175 | 1.3 | 0 |
| 전남 | 17,139 | 25,722 | 1.5 | -31.8 |
| 대구 | 14,057 | 27,270 | 1.9 | -5.0 |
| 경북 | 18,831 | 99,159 | 5.3 | -32.9 |
| 부산 | 24,646 | 66,148 | 2.7 | -12.9 |
| 울산 | 6,544 | 43,774 | 6.7 | -28.7 |
| 경남 | 21,978 | 68,087 | 3.1 | -16.2 |
| 제주 | 4,488 | 5,950 | 1.3 | 18.2 |

세율(35%)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전국 11만4000명의 2.6%(3000명)에 머물러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화학교 성폭행 추가수사 경찰청 수사팀 광주 급파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4·6면)

경찰청은 28일 광주 인화학교에 남은 장애인들의 인권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5명과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 전문 수사관 10명 등 총 15명으로 꾸려졌다. 특별수사팀은 ▲가해 교사들의 추가 성폭행 여부 ▲관련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 적정성 ▲인화학교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 및 비리 등 3가지 사항을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수사팀은 당시 가해 교사들이 복직된 뒤 또 다른 성폭행 행위

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수사팀은 인화학교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인 인화원에서 발생한 원생 사이의 성폭행 사건 의혹(광주일보 2010년 8월 11일 7면)에 대해서도 추가수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화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는 지난해 개봉 이후 총 관객수가 125만 명을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이로 인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정권이 잇따라 올라오자 가해 광주시교육청이 대책반을 구성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김희기자 kimho@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자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학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우암학원 창학 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www.segyero365.co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10907-중-23606호

10월 1일 신축개원

세계로병원

SEGYERO HOSPITAL 365

초정밀 로봇 인공관절 수술시스템 도입

365일 진료
야간진료 (19:00~21:00)

- 가장 신뢰받는 세계적 전문병원그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최고의 전문성과 감동적 프로세스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365일 제공함으로써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습니다.

주요 전문화 분야

- 정형외과 관절·척추·외상
- 소화기내과
- 건강검진

상담문의 (062) 450-5000

광주광역시 광안구 장덕동 1300번지(롯데마트 수원점 건너편)

정재훈(전, 동아병원 대표원장)은 이제 세계로병원을 신축개원 합니다.